미국 중간선거 매크로/섹터 코멘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eritz Research 2026. 11. 5

매크로 코멘트

분점정부 형성에 따른 행정부 권한 위축 우려 존재하나, 대통령 거부권 및 행정권한으로 인해 기존 정책이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다만 신규 감세, 재정지출, 대규모 산업지원법 등은 의회 협조가 필요해 신규 정책 추진력 약화 가능성

주식시장: 통상적으로 첨단기술/빅테크, 우주/항공 등은 초당적 어젠다. 공화당 바스켓은 에너지, 내연기관, 방산, 금융, 제조업(산업재) vs 민주당 바스켓은 신재생, 전기차, 소비재, 헬스케어. 연간 단위로 볼 때 과거 중간선거 이후 업종별 수혜 패턴은 이후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음. 당시에는 경기, 원자재, 기술 사이클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음. 별개로 대선 사례까지 추적해보면 민주당 vs 공화당 바스켓 주가 수익률 차별화는 대부분 선거 다음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선반영

채권시장: 행정부와 의회의 분화로 인한 재정집행 중단, 셧다운 리스크는 재정적자 축소 기대로 연결. GDP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 중 감세와 의료비 지원의 협상 여부에 따라 축소 규모가 결정될 것이나 1%p 정도의 재정적자 축소는 미국채 공급부담을 연간 3천억달러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직접적 재정적자 축소의 수급요인보다 재정의 성장지원 둔화 및 전쟁 종료 기대에 따르는 유가 안정 등 여건이 미국채 10년 4.8%대까지 안정에 견인

연준 통화정책 12월 4.25%로 인상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2027년 상반기까지 미국채10년 4.8% 타겟, 2027년 하반기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전환에 중간선거 결과 주요한 영향 미칠 것. 재정건전화 가능성 감안할 때 축소(장기물 안정)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연준 통화정책 부담 완화는 단기금리 안정으로 미국 장단기금리차 역전 우려 낮추는데 도움 줄 것

외환: 재정축소 기대는 달러공급 축소인 반면, 재정 성장기여도 둔화의 미국경기 둔화 부담은 달러약세 재료라는 점에서 중립적 스탠스.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안전선호 측면에서 달러강세를 용인할 정도는 아님. 오히려 이벤트 해소 이후 금리하락 및 금융시장 안정 기조에서 달러 약세 기대 정도는 지지할 것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것 대비 2027년 프랑스 선거 등 유로화 불확실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유로대비 달러가 강해지는 부분 중요. 반면, AI 투자 반도체 수혜 국가들의 달러대비 자국통화 강세까지 혼재된 흐름 지속될 전망

섹터별 코멘트

데이터센터(단기 부정, 장기 중립): 기본 시나리오는 '총수요 소멸'이 아닌 '투자 시점과 지역의 재배치, 사업자간 격차 확대'. AI 투자 중단이 아닌 미국 내 신규 건설 속도 둔화 → 입지 이동·기존 시설 활용·효율화 투자 확대

당장 부각되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의 신규 투자 제한인데, 향후 1) 전력/인허가 확보가 가능한 다른 주로의 투자 이동, 2) 해외 건설 확대 등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음. 부지 재선정, 계통접속 재진행에 따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나, 미국 전체 투자 감소폭 완충

기존 데이터센터의 희소성 상승. AI 데이터센터의 강력한 초과수요 상황에서 가용용량을 확보한 운영사/임대사업자의 가격 협상력 강화 가능성. 앞으로 발표할 설비용량보다 이미 확보된 설비 및 고객 계약, 전력비 부담 조건, 설비용량당 수익성이 기업가치에 더 연동될 것

반도체(단기 부정, 장기 중립): 미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해석, 주요 AI DC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에서의 연기 및 축소, 그리고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음. 이는 민주당 텍사스 주지사가 DC 건설 유예 및 주택용 전기요금 동결, 빅테크 기업 혜택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타 주요 건설 지역에 이러한 정치적 기조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큰 그림에서 금번 AI 사이클의 본질을 감안 시, 중장기 수요 성장은 견조하며 경쟁적 투자는 지속되리라 예상. 이는 1) DC 투자는 투자 가능 지역으로 확장·변경·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AGI 도달 선착순 여부가 생존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연산능력 확장은 Scaling Law(규모의 법칙)가 작동하는 AI 산업 내 핵심 경쟁요소임. 당사가 지난 7월 '지능제조업' 보고서를 통해 밝혔듯, 중장기적으로 DC 사업은 미국보다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투자되리라 예상

또한 2) 이미 2027년과 2028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주문받은 진성수요는 공급가능 능력을 매우 크게 초과. 일부 지연 및 조정이 발생해도 공급부족 상태에는 큰 변화 없을 정도. 올해 메모리 주문량 대비 공급가능 능력(충족률)은 80% 초중반에 머무르며 판가가 크게 상승했음. 2027년 충족률은 더욱 심화되어 80% 내외로 떨어질 예정임. 3) 한편 최근 OpenAI의 샘 알트만 CEO는 한국을 방문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2027~2030년 HBM 등 스페셜티 메모리를 부탁함. 모든 CSP 및 프런티어 모델 업체들에게 연산능력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조달경쟁이 발생하리라 예상됨

전기/전자(단기 부정, 장기 중립): AI 인프라 투자 위축 우려가 AI 하드웨어 전반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AI 추론 및 Agentic AI 확산에 따른 컴퓨팅 수요 증가와 빅테크의 견조한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를 감안하면 중장기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조는 유지될 전망

특히 현재 AI 하드웨어 시장은 수요 부족보다 전력, 반도체 패키지기판, MLCC 등 핵심 부품의 공급 병목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따라서 일부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수주잔고와 공급 부족을 기반으로 핵심 하드웨어 업체들의 실적 성장 가시성은 여전히 높음. 오히려 공급 병목 장기화에 따른 가격 협상력 강화와 관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IT 소재장비(단기 부정, 장기 중립): 민주당 압승은 IT 소재장비 섹터 주가에 있어서 부정적.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 만큼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2028년 이후 반도체 수요 곡선에도 변화 가능성이 대두됨. 기승인된 2027년까지의 프로젝트 진행은 유의미한 변동이 부재할 것이고, 2028년 이후 예정된 프로젝트의 시작 시기 지연 우려. 당사는 AI 투자 주체(CSP, 프론티어AI, 네오클라우드)의 투자 의지가 강하다는 점과 국가 간 패권 경쟁에 AI가 갖는 의미를 감안 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큰 지연/취소는 적을 것으로 전망. 섹터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나,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서는 업체 별로는 저가 매수 접근 추천

통신(중립): 내수 산업인 통신업종은 전통적으로 미국 정책이나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섹터. 선거 후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Starlink 주파수 매입에 대한 FCC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나, 트럼프가 임명한 Carr 의장이 단기에 교체될 가능성은 제한적

다만, 최근 국내 통신사들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 선언으로 IT 섹터와의 동기화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부담. 긍정적인 포인트는 미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 강화 시 해외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강해지고, 국내에 공격적인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을 발표한 SK텔레콤의 부분 수혜가 가능하다는 판단

우주(중립): 우주 산업은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인 사안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골든 돔'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일제히 하락. 다만 1) 골든 돔 관련 250억달러가 이미 reconciliation 예산으로 집행됐고, 2) 하위 항목이라 할 수 있는 SBIRS 프로젝트는 1994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PWSA 프로젝트는 2023년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실증을 시작. 3)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 요청한 NASA 과학/탐사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 세출위원회에서 되돌린 점 등을 감안 시 우주 산업의 정부 지원 약화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일론 머스크와 SpaceX에 대한 규제 리스크 우려 등으로 국내 SpaceX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 일제히 하락. 데이터센터 규제, Starship 발사 횟수 한도 상향 거절 등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파악되나, 2027년 상반기 상용화 예정인 Starship의 발사 횟수 증가만으로도 국내 밸류체인들의 실적 업사이드는 충분

미디어(중립): 내수 위주의 국내 미디어 산업은 환율/관세 영향이 제한적. 미국 미디어 산업 경쟁 구도는 넷플릭스vs스카이댄스vs디즈니로 재편이 완료됐으며 콘텐츠 수급 구도가 바뀔 가능성 역시 제한적

자동차(중립): 중간 선거 결과와 관련된 주요 화두는 대미 관세 취소. 취소 가능성 제한적. 1) Section 212나 Section 301같은 관세 권한은 대통령이 보유, 2) 민주당 또한 미국 제조업 보호 기조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동의, 3) 중간선거 패배로 손상된 정치적 영향력 반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정치적 동기 존재

이차전지(긍정):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정책 기대감의 심리개선은 명확. 트럼프 대통령의 BEV 구매 보조금 소멸 및 연비규제 폐지 영향에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BEV향 출하량 급감.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인해 단기 내에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적음. 단, 2028년 11월 미국 대선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시각으로 정책 모멘텀 기대 가능. 국내 배터리 셀 3개사의 BEV 및 ESS 대응능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태양광(긍정): 공화당 및 민주당 양당에서 태양광은 긍정적 업종. Section 232 정책의 훈풍, 정책 변화 기대감 유효('27년말까지였던 상업용 ITC 세액공제 연장 및 주거용 25D 세액공제 부활 가능성). 미국 태양광 공급망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정유/석유화학(긍정): 이란과의 종전 기대감 높아져. 이미 반응한 국제유가, 2027년 1) 낮아진 재고수준 속, 범용 제품들에 re-stocking 수요 발생 가능성, 2)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화학 업종에 원가 부담감 낮아져. 수혜는 기초화학이 정유보다 높아

유틸리티(중립): 재생에너지 수혜, 화석 연료 피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강도가 크지 않을 것. PTC/ITC/AMPC 등 재생에너지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은 행정부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음. 남은 건 2029년 1월 대권 변화 시 정책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대

풍력: 인허가 받은 프로젝트의 이의제기 기간을 15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인허가 측면에서의 혁신은 기대. 다만 실제 법안 통과는 2027년으로 당장의 임팩트 크지 않을 전망

원자력: 양당이 모두 미는 몇 안되는 분야. 민주당 체제 하에서도 정부 재정 주도의 원자력 투자 지속 예상

연료전지: 최대 수혜 밸류체인. 민주당이 AI DC 투자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환경, 소음 문제 적으며 탄소포집 및 수소 활용 등 보강책이 풍부

LNG, 가스터빈: 법으로 LNG 수출을 막는 시나리오는 2028년까지 사실상 불가능. 2028년 이후를 본다면 인허가가 까다로워지는 리스크 존재. 알래스카LNG 등 특정 프로젝트는 당장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 가스터빈 수요 역시 데이터센터 건설 성장률 둔화와 함께 하방 압력 받을 수 있음

건설(긍정): 데이터센터 건설 성장 둔화가 미국 금리 하락, 환율 상승으로 연결된다면, 주택 시장에 긍정적. 주택 구매 능력 개선되고 공사비 상승세도 둔화. 주택 중심의 GS건설, DL이앤씨 수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되면서 아시아 데이터센터 건설 필요성 증가. SGC에너지와 GS건설 등 국내 시행사&시공사들의 테넌트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 2027년 데이터센터 수주 및 매출 급성장에 주목. 2027년 지방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 AI DC 특별법 시행 등 정책 모멘텀도 강화. 데이터센터 건설 둔화로 반도체 수요 둔화될 경우 삼성E&A 등 반도체 팹 시공사들에게 간접적으로 부정적

원전 투자는 초당적으로 진행. 현대건설 등 대미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중립요인

제약/바이오(긍정): 국내 제약·바이오는 미국 매출이 가시화된 대형주를 우선 편입하고, 중소형 신약주는 임상·기술이전 성과에 따라 비중을 늘리는 전략 유효. 민주당의 상·하원 탈환으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 논의에 힘이 실리겠지만 입법과 처방 확대까지는 시차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옴리클로가 미국 출시와 동시에 대형 PBM의 사보험 처방집에 선호약으로 등재된 셀트리온을 선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록빌 생산거점을 확보한 만큼 중기 수주 확대에 주목하되 12월 미국의 바이오 우려기업 명단 발표 이후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가 실제 신규 계약으로 이어질 때 비중 확대 권장. 중소형주에서는 중국 경쟁사의 거래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보다 글로벌 임상에서 차별성을 입증 중이거나 파트너의 후속 개발 착수가 확인된 한미약품을 선호

음식료/유통(중립): 미국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은 냉동식품 소비에 부정적 이슈이나, 추가 삭감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센티먼트 측면의 플러스가 큼, 펀더멘털 개선은 제한적. 식품 수출 관세도 현 수준 유지 예상

조선(중립):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가 밀집된 텍사스 주의 민주당 승리로 인해 육상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 변화 리스크는 확대. F.D.C(부유식데이터센터)는 해당 리스크의 유일한 대안. F.D.C의 등장 배경이 '육상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였기 때문. 중국과 경쟁을 위한 AI데이터센터 확대 레이스를 멈출 수 없다는 전제하에, 빅테크들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F.D.C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군함의 경우, 11월 11일까지 대통령이 해군에게 요구한 새로운 경쟁입찰방식의 수상전투함 도입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 이는 상/하원과 무관하게 지난, 8월 13일 대통령 각서에 따른 예정사항. 우리나라 충남급 호위함의 선정 가능성을 주목. 해외 조선소 한 곳 당 2척까지는 해외에서 건조를 승인하는 형태. 이후 물량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 물론, 장기적으로 상/하원의 제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선체(hull), 엔진 모듈 등은 한국에서 조달하는 형태. 2027년 1월 3일 의회 종료 전까지 FY2027 국방수권법에서 기자재 해외 조달 허용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FY2028 국방수권법을 기대

엔터/레저(긍정): 미 중간선거 이후 금리·유가 하락은 엔터/레저 업종의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 반도체 업종의 수급 쏠림이 완화될 경우 엔터 등 소비 관련 업종으로의 순환매 유입 기대, 레저는 여행 소비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간접 수혜 가능성. 향후 엔터는 저연차 IP 공연·MD 이익 기여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카지노는 드롭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여부에 주목

화장품(중립): 현재의 12.5% 관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의견은 중립적. 한국산 화장품은 2024년까지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해옴. 2025년 4월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2025년~26년 정책 변화를 거쳐, 2026년 7월부터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2.5%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음.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소액면세제도(de minimis)도 2025년 폐지함에 따라, 한국 역시 통관 편의성이 축소된 상황 (직배송 비용 상승)

금융(중립): 금융업종의 경우, 단기 정책 변수와 매크로 환경 개선 기대감이 교차하기에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 1) 단기 정책 변수 측면에서 금융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친가상자산 입법 통과 어려움 등이 예상. 이에 따라 금융업종에게 있어 단기 비용 부담 우려, 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일 수 있음. 다만 2) 매크로 환경 개선 기대감 측면에서는 금융업종에겐 긍정적.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될 경우 금리 안정화와 매크로 변동성 완화가 예상, 이에 따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방어, 증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 회복, 보험사의 채권 평가손실 부담 경감 등 금융권 전반의 이익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